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이탈

김영문 브루노 신부

일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몰두하고 즐기다 보면
 정 붙이고 시간이 묶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때문에
 자주 쉽게 끌리게 되고 찾게 된다
 습관에 매이기도 하고
 세상의 체면과 명예 때문에
 스스로 벗어나거나 이탈하기도 어렵다

어느 순간 즐거움이 다하고
 고독해질 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대면해야 한다
 삶과 일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일 때
 하느님을 향하고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성찰해야 한다

허전함을 피조물들로 마음 채우려 하지 말고
 또 다른 기쁨을 찾지 말고
 하느님 앞에서 성찰하며
 회개하는 마음 일으켜야 한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11/01/2025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0,300
 현재 참가 인원- 91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공지 사항

1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 기도 50만 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을 봉헌합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2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 행사와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신앙 체험 수기 모집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해 시애틀 성당 신자 여러분의 신앙 체험 수기를 게재하고자 모집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분량 : 2페이지(스페이스 포함 1400자/페이지 당), 사진 1장
- 마감 일자 : 11/30/2025
- 문의 : 편집 위원장 김현숙 (206)375-5959
kimhelen6909@gmail.com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모금 현황 <11/9>

김성희 리카르도, 정상훈 보나벤투라, 심진수 사라, 권명순,
김요셉, 김길수 요한보스코, 박인순 레지나, 김춘식 요셉, 익명 3분.
모금 총액 : \$1,625.00

4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그룹 공부 신청

- 내용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등
- 대상 : 성경공부가 필요한 모든 청년, 영어권 포함
- 신청 : 아래의 링크에서 등록하시거나 본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FpnI4ncbx1Rl4iRzI_nC1A_cWPpFZh-hmGuGfCAQIdMMGA/viewform?usp=dialog



영 어 권 성서모임

Come join us as we dive into
the Word of God!
Schedule to be determined
after registration.

scan to regi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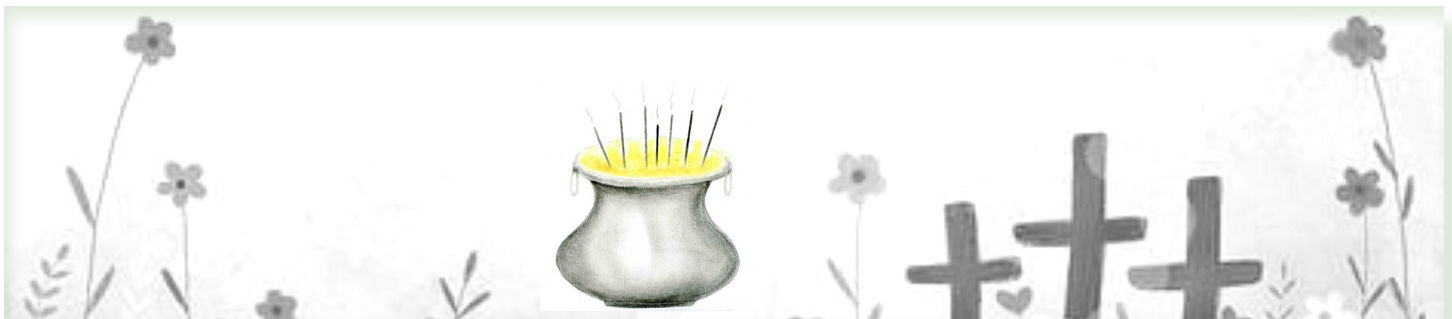
tinyurl.com/cblmseattle2025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정영자 한천혜 최수영 박재룡 박원규 한씨니 양성림 양요한 유애림 차태진 안창남 김경자 송재민 곽영준 이명희
이석돈 이진순 이두순 전윤원 김용현 노찬규 강승호 한경순 공세진 김병성 정순도 황길수 안승훈 신경협 오세영
강성수 홍소영 김성희 김재림 최성실 최은경 오현주 고광운 신길하 안신자 이종성 박균조 이상철 이장원
Sun Ki Choe

[교무금 PushPay] 장인섭 박소영 장승일 정승범 이로서 맹성호 이진열 송승혜 이현주 강봉조 김명준 김종대 백승진 이제용
이서영 안마슈 **[감사 현금]** 이명희 정순도 탁희선 **[성소 후원 회비]** 이명희

주일 현금	교무금	PushPay	감사 현금	-	-
\$6,693.00	\$7,715.00	\$2,010.00	\$180.00		



공지 사항

5 미사 안내

- 11/22(토) : 저녁미사는 구역판공 관계로 없습니다.
- 11/27(목) : 추수감사절 미사는 오전 10:00 봉헌됩니다. 미사가 끝난 후에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사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구역장 회의

- 일시 : 11/16(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 교리실
-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11/16(주일) 8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실
- 베드로회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 11/23(주일)
- 음식 봉사 : Edmonds 구역
- 메뉴 : 돼지 불고기, 오징어 볶음

9 레지오 마리아ه 피정

- 일시 : 11/22(토) 09:00AM-3:30PM
- 장소 : 본당
- 참가 대상 : 행동/협조단원
- 참가비 : \$10
- 신청마감 : 11/16(주일)
- 문의 : 각 Pr 단장과 꾸리아 간부
- 준비물 : 묵주, 뗏세라, 편안한 복장

10 성당 주방 재물 조사 및 사용 안내

성당 주방의 재물 조사를 진행합니다.
 * 집에 보관하고 계신 성당의 주방 기구 및 식기들이 있다면 성당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주방을 이용하실 때에는 성모회장님께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 사용 후에는 뒷정리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 즉시 쓰레기장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11 주차장 안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선을 준수하여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SHOEBOXES OF JOY

대건회에서는 2025년 성탄 프로젝트로 'Shoeboxes of Joy'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대건회에서 정성껏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Donation : 빈 신발 박스, 각종 용품 (청소, 생활, 위생 용품 등), 보존 식품류
- 장소 : 성당 사무실
- 문의 : 대건회장 우인영 요셉 (404)405-5574

13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안내

성당의 쓰레기장 재활용 분리 수거장에는 비닐 쓰레기 봉투를 포함한 모든 비닐류가 들어가는 안 됩니다. 또한 뚜껑은 반드시 꼭 닫혀 있어야 수거 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분리 수거함 사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말라 3,19-20
 <너희에게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화답송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려 주님이 오신다.

제2독서 2 데살 3,7-12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1,5-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48

예물 준비 성가 : 41, 446

성체 성가 : 46, 31

파견 성가 : 437(2)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11/9)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3명	61명	246명	151명	37명	538명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웁원 마르피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원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1/20/25)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2/20/25)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이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주교회의와 주교 평의회 메시지

기후 정의와 공동의 집을 위한 호소

생태적 회개와 변화, 그리고 잘못된 기후 해결책에 대한 거부

III. 행동 촉구

우리는 부유한 나라들이 천연 자원 채굴과 온실가스 배출에 주된 역사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자신들이 진 사회적 생태적 빚을 인정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빚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효과적인 기후 금융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으로써 남반구가 입은 기존의 손실과 피해가 복구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며 지구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에서 윤리와 정의에 헌신하는 실천가들이 **역사적 연합을 이루도록 초대한다.**

우리는 2030년까지 모든 생물군계에서 산림 파괴 제로화(zero deforestation)를 요구한다. 이는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시급히 필요한 공약이다.

우리는 국가들이 기후 비상사태에 상응하는 규모의 의욕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포함하여 지난 당사국 총회 때에 내린 공동 결정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지역 공동체, 시민 사회, 종교 단체들의 적극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 결정 참여**를 통하여 기후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사회적 환경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지역 공동체와 민족들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생산 주기와 소비문화를 변화시켜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경제와 에너지 전환

이 불평등을 영속화하거나 인권 또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책들을 요구한다.**

우리는 기후와 생물 다양성과 모든 생명체의 권리를 위한 **공동 행동**은 물론, 공동선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시급히 요구한다.**

새로운 집단적 양적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신규 기후 자원 목표'라고도 함)에 깊이 실망한 **우리는 기후 금융이**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장 취약한 공동체들에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며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개발 은행과 금융 기관이 화석 연료와 채굴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기후 금융이 자연의 금융화에 기초하지도 않고 남반구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지도 않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윤 위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자연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요구한다.** 또한 그 목적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며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수요와 소비의 감소, 탈성장 목표, 회복적인 경제 모델로의 전환 등 지구 위험 한계선을 고려한 정책들을 **요구한다.**

IV. 희망과 생태적 회개의 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교회는 우리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이고 남반구 민족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대륙 간 연맹을 결성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안하신 “행복한 삶”(Buen Vivir)(「사랑하는 아마존」[Querida Amazonia], 8항)과 “행복한 절제”(「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23항)인 돌봄의 영성에서 영감을 받아 생태적 회개의 길에 나서도록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생태적 인식을 고취하여**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피조물 존중의 자세를 보여 주는 생활 양식을

진작하도록 **온 인류를 초대한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 정의에 헌신하는 **공동체**, 사회 기관, 학자들, 개인들 사이에 **연대와 기후 행동 관계망을 강화하도록 격려한다.**

우리는 **영토를 지키려다가 위험에 놓인 공동체들과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고 희생자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가난한 이들과 우리 누이요 어머니인 지구를 보호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기후 위기는 윤리적, 도덕적 도전임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전념한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과 조상의 지혜가 자연 보존과 기후 적응에 함께 기여한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며 이 둘 사이의 대화를 **촉진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한다.** 교회는 지구의 부르짖음은 또한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면서(「찬미받으소서」, 49항 참조), 자신의 예언자적 사명을 통하여 생태적, 사회적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제30차 당사국 총회가 기후와 사회적 생태적 정의를 향한 구조적 변화를 이룰 역사적 기회임을 알고, 기후 정의와 우리 공동의 집 돌봄을 위하여 이웃 종교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가장 타당한 근거 자료에 기반한 기후 행동이 꾸준히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지역적, 광역적, 세계적 필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과학계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레오 14세 교황의 말씀을 되새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사랑과 일치이다.

본 문서

이 문서는, 민족들의 호소와 기후 붕괴의 긴급성에 따라 남반구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이고자 한데 모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교회들의 공동 식별의 결실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동의 확신을 함께 나눈다. **기후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고, 생태적 회개 없이는 미래도 없으며,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어떤 참된 해결책도 없다.** 이러한 입장은, 가장 취약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교회인 우리가 우리 지역 안에서 겪은 상처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 안에서 씨 뿌려진 희망에 기초하여 세운 것이다.

2025년 5월 25일,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반포 10주년을 맞아 사도국 창가에서 삼종 기도를 바치며, 이 회칙이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라는 이중의 호소에 귀 기울이도록 한 가르침임을 강조하시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큰 반향과 힘에 초점을 맞추셨다. 이러한 인식은 생태적 회개를 현대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 증언의 중심으로 삼는 포괄적 영성을 심화하면서, 남반구 교회들이 특히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30: COP 30, 이하 제30차 '당사국 총회')를 고려하여 생태 정의와 사회 정의를 하나로 묶는 사회적 환경적 요구에 더욱 헌신하도록 촉구하는 구심점이 된다.

따라서 이 문서의 목표는 제30차 당사국 총회를 향한 교회의 사목적이면서 동시에 시민적인 행동을 증진할 지침들을 설정하고, 기후에 관한 국제 협상 자리에서 교회가 통합적 생태 정의의 관점에서 공적 발언을 하도록 북돋우며, 환경과 기후 붕괴의 주요 원인들과 그 책임들을 조명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천명한다.** 우리는 잘못된 기후 해결책들을 거부하고, 환경을 존중하고 돌보는 사회의 토대인 행복한 절제와 생태적 회개를 장려한다.

존경의 마음으로 기억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하신 호소와 최근 레오 14세 교황 성하께서 하신 호소에 따라, 기존

의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 기초한 해법뿐만 아니라 자연을 금융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하고, 단순한 에너지 전환 이상의 많은 것이 위기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연의 금융화(financialisation of nature)는 숲, 강, 기후와 같은 창조 세계의 핵심 요소들을 협상 가능한 금융 자산으로 변환시켜 그들을 '생태계 서비스'쯤으로 취급함으로써 이윤 위주의 논리에 종속되는 상품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논리이다.

생태와 기후 그리고 사회의 위기는 공동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인내와 관용, 상호 경청에 기초한 대화를 증진하라는 도전 과제이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 협약」(리우협약)에서 규정한 사안들, 곧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붕괴, 사막화는 또한 강제 이주와 같은 사회문제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불평등과 인간 고통을 가중시킨다.

「찬미받으소서」가 제안한 통합 생태론에서 영감을 얻은 우리는 인간과 사회, 자연 사이의 근본적인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도록 부름받는다.

1. 기후 붕괴에 대한 긴박한 경고

2025년 11월 브라질에서 있을 제30차 당사국 총회는 우리 지구와 모든 생명체에 지극히 중대한 시기에 개최된다. 우리가 기후 붕괴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음을 환경 지표는 보여 준다. 2024년, 우리는 지구 표면 평균 온도의 복합적인 온난화, 곧 대지와 해양 모두의 평균 온도가 이른바 산업 혁명 이전 시대(1850-1900년)보다 1.55° C 이상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였다.2) 3) 이것은 인간 문명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온난화이다.

202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의 범위와 규모는 전년도 평가에서 추정된 것보다 더 크다." 202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종합 보고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기후변화] 초과와 규모가 커지고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태계와 사회는 기후 영향 요인의 더 크고 광범위한 변화에 더욱 더 노출되며, 많은 자연계와 인간계에 미치는 위험도 더욱 더 증가한다. 초과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는 기반 시설, 저지대 해안 주거지, 이와 관련한 생계에서 더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특히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이미 황폐화되거나 사막화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기근과 사막화는 농작물 수확, 수자원,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빈곤과 건강 악화와 실향 문제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미 실향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와 라틴 아메리카 등의 지역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1850-1900년대에 비하여 1° C 올라가는 데에 거의 한 세기(1920-2015년)가 걸렸다. 그러나 단 10년(2015-2024년)만에 1.55° C에 도달하였고 지난 2년 동안 0.4° C나 급증하였다. 남반구의 이러한 사회적-환경적 위기는 역사적 불평등을 증폭시키며 지역 차원으로도 전 지구 차원으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2. 단기적이고 부적절한 해법들

1992년 이래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년), 「글래스고 합의」(Glasgow Pact, 2021년),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2022년),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2023년)과 같은 근본적인 협정들과 결정들을 촉진해 왔다. 이러한 진전들도 중요하지만, 참다운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주요 도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제29차 당사국 총회(COP 29)에서는, 2035년까지 연간 3천억 달러 지원이라는 새로운 금융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액수는 적응과 완화, 손실과 피해에 대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의 보수적 추산으로도, **기후변화 적응 조치만을 위해서 연간 약 5천억 달러가 필요하다.** 게다가 현재의 이 부족한 액수에는, 가장 취약한 나라들과 공동체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게 보장하는 명확한 로드맵이 빠져 있다. <다음주에 계속>